

2017년 2월 23일 공보 2017-2-22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7년 2월 23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김용민

Tel: (02) 759-4066 Fax: 759-4485 E-mail: kimym@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 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세계경제지표

		16.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7.1월
미국	GDP성장률(전기비)연율, %) ¹⁾	0.8	1.4	3.5	1.9	-	-	-	-
	소매판매(전기비), %) ¹⁾	-0.1	1.5	0.9	1.7	0.7	0.2	1.0	0.4
	제조업생산(전기비), %) ¹⁾	0.1	-0.3	0.1	0.3	0.3	0.0	0.2	0.2
	ISM제조업(기준=50) ²⁾	50.0	51.5	51.1	53.3	52.0	53.5	54.5	56.0
	실업률(%) ^{1,2)}	4.9	4.9	4.9	4.7	4.8	4.6	4.7	4.8
	비농가취업자수증가(만명) ^{1,2)}	19.6	16.4	23.9	14.8	12.4	16.4	15.7	22.7
유로	GDP성장률(전기비), %) ¹⁾	0.5	0.3	0.4	0.4	-	-	-	-
	소매판매(전기비), %) ¹⁾	0.8	0.3	0.3	0.9	1.5	-0.6	-0.3	..
	산업생산(전기비), %) ¹⁾	0.9	-0.2	0.5	0.8	0.2	1.5	-1.6	..
	제조업PMI(기준=50) ²⁾	51.7	52.0	52.1	54.0	53.5	53.7	54.9	55.2
	경기체감지수(기준=100) ²⁾	103.8	104.1	104.1	106.9	106.3	106.5	107.8	107.9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6.7	6.7	6.7	6.8	-	-	-	-
	수출(전년동기비), %)	-13.0	-6.4	-6.9	-5.2	-7.9	-1.5	-6.2	7.9
	소매판매(전년동기비), %)	10.3	10.2	10.5	10.6	10.0	10.8	10.9	..
	고정투자(전년동기비), %) ³⁾	10.7	9.0	8.2	8.1	8.3	8.3	8.1	..
	제조업PMI(기준=50) ²⁾	49.5	50.1	50.2	51.4	51.2	51.7	51.4	51.3
브라질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11.4	-6.5	-5.3	-3.1	-7.3	-1.2	-0.1	..
러시아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1.1	1.5	1.0	1.7	1.6	3.4	0.2	2.3

주: 1) 계절조정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누계 기준

- 국제금융시장은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도 축소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국제금융지표¹⁾

		16.9월	10월	11월	12월	17.1월	2.22월
전세계 MSCI		418.4	411.0	413.4	421.8	433.1	446.0
- 선진국		1,725.7	1,690.9	1,712.1	1,751.2	1792.4	1842.4
- 신흥시장국 (중국 ²⁾)		903.5	905.1	862.8	862.3	909.2	951.0
VIX		3,004.7	3,100.5	3,250.0	3,103.6	3159.2	3261.2
환율	달러인덱스	95.5	98.4	101.5	102.2	99.5	101.2
	중국 ³⁾	6.67	6.77	6.88	6.94	6.89	6.88
	브라질 ³⁾	3.26	3.19	3.38	3.26	3.15	3.06
	인도네시아 ³⁾	13,042	13,052	13,558	13,423	13,373	13,357
국채금리 ⁴⁾ (%)	미국	1.59	1.83	2.38	2.44	2.45	2.41
	독일	-0.12	0.16	0.28	0.21	0.44	0.28
CDS프리미엄(bp)	브라질	272.8	273.5	295.8	280.0	250.5	224.2
	인도네시아	149.0	155.0	167.9	157.6	153.1	126.6
	한국	40.0	42.0	48.6	44.3	48.3	43.6

주: 1) 기말 기준
4) 10년물 기준

2)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

3) 미달러화 대비

-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의 신정부 정책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소비 부진으로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였으나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상황은 취업자수가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서비스업에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전망과 비교하면, 소비는 심리 위축 지속 등으로 전망 수준을 다소 하회하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세계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경제지표

	2014	2015	2016	16.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7.1월
GDP 성장률 ¹⁾	3.3	2.6	2.7	0.5	0.8	0.6	0.4	-	-	-	-
(민간소비)	1.7	2.2	2.4	-0.2	1.0	0.5	0.2	-	-	-	-
(설비투자)	6.0	5.3	-2.4	-7.4	2.8	0.2	6.3	-	-	-	-
(건설투자)	1.1	3.9	11.0	6.8	3.1	3.5	-1.7	-	-	-	-
소매판매액지수 ²⁾	2.0	3.9	4.1	-1.0	2.8	-1.7	2.5	5.5	-0.1	-1.2	..
설비투자지수 ²⁾	5.2	6.3	-1.3	-8.7	6.4	-1.5	8.6	0.8	5.9	3.4	..
건설기성액 ²⁾	-0.7	2.3	17.5	9.4	2.3	4.5	1.1	-0.2	6.3	-1.8	..
수출(통관) ³⁾	2.3	-8.0	-5.9	-13.7	-6.7	-5.0	1.8	-3.2	2.3	6.3	11.2
- 일평균 ³⁾	3.3	-8.7	-5.9	-13.7	-5.3	-5.0	0.4	-1.0	-2.0	4.2	16.3
제조업생산지수 ²⁾	0.3	-0.6	1.0	-0.7	1.1	0.5	0.8	-0.9	3.7	-0.4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2.3	2.8	3.0	-0.2	1.6	0.8	-0.3	-0.4	0.3	0.3	..
소비자심리지수 ⁴⁾	105.8	102.6	99.5	99.3	99.9	101.6	97.3	102	95.7	94.1	93.3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76	71	70	65	71	71	72	71	72	72	75
취업자수 증감 ⁶⁾	533.0	336.9	298.9	287.1	289.1	317.5	302.2	278.2	339.0	289.3	243.2
(제조업)	(145.6)	(156.3)	(-4.6)	(125.8)	(37.7)	(-71.4)	(-110.3)	(-114.5)	(-101.9)	(-114.5)	(-159.7)
고용률(원계열, %)	60.2	60.3	60.4	59.1	60.8	61.1	60.7	61.1	61.1	60.1	58.9
실업률(원계열, %)	3.5	3.6	3.7	4.3	3.8	3.6	3.2	3.4	3.1	3.2	3.8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BSI 기준

6) 천명(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의 증감), 전년동기비

[물가]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후반을 유지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에 가까운 수준에서 동락하겠으나, 농축수산물가격의 안정세 회복 등으로 연간 전체로는 1월 전망 수준(1.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16.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7.1월
소비자물가 (전기비)	0.9 (0.5)	0.8 (0.2)	0.7 (0.2)	1.5 (0.6)	1.5 (0.1)	1.5 (-0.1)	1.3 (0.1)	2.0 (0.9)
▪ 농축수산물 (농산물)	3.7 4.8	1.1 -0.6	3.1 2.1	7.5 9.1	7.7 9.4	8.0 9.9	6.7 8.0	8.5 8.4
▪ 공업제품 (석유류)	-1.1 -10.6	-0.7 -11.2	-0.5 -8.1	0.4 -2.3	0.4 -5.2	0.2 -2.5	0.6 1.1	1.6 8.4
▪ 전기·수도·가스 (석유류 제외)	0.5 -8.2	1.1 -7.0	0.8 -13.0	0.8 -8.7	1.3 -8.3	0.6 -6.5	0.5 -11.5	0.5 -8.3
▪ 서비스	2.4	2.4	2.2	2.1	2.1	2.1	2.0	2.2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1.9	2.0	1.9	1.7	1.9	1.7	1.6	1.7
▪ 농산물·석유류 제외	1.7	1.8	1.4	1.5	1.8	1.6	1.2	1.5
기대인플레이션율 ¹⁾	2.5	2.4	2.4	2.5	2.5	2.5	2.5	2.8

주: 1)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이 지속되면서 주가 및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축소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신정부의 환율 관련 정책에 따른 달러화 약세 전환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국내금융지표

	16.9월	10월	11월	12월	17.1월	2.22일
통안증권금리(91일물, %) ¹⁾²⁾	1.28	1.37	1.48	1.39	1.34	1.33
국고채금리(3년물, %) ¹⁾²⁾	1.25	1.44	1.71	1.64	1.68	1.69
국고채금리(10년물, %) ¹⁾²⁾	1.40	1.69	2.14	2.07	2.16	2.25
KOSPI ¹⁾	2,044	2,008	1,983	2,026	2,068	2,107
원/달러 환율 ¹⁾	1,101	1,145	1,169	1,208	1,162	1,143
(전월말대비 절상률, %)	(1.23)	(-3.77)	(-2.10)	(-3.20)	(3.92)	(1.71)

주: 1) 기말 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 가계대출은 은행의 경우 증가규모 축소 움직임이 이어졌으나 비은행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

	16.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7.1월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¹⁾	9.9	18.4	20.8	19.7	7.5	8.8	3.4	0.1
▪ 주택담보대출	9.7	14.0	17.0	15.1	5.4	6.1	3.6	0.8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0.1	4.5	3.8	4.5	2.1	2.7	-0.2	-0.7
주택 매매가격(%) ²⁾	0.2	0.2	0.4	0.6	0.2	0.3	0.1	0.0
	<0.0>	<0.1>	<0.2>	<0.4>	<0.2>	<0.2>	<0.1>	<0.0>
▪ 수도권 ³⁾	0.2	0.4	0.7	0.9	0.4	0.4	0.1	0.0
(서울)	(0.3)	(0.6)	(1.1)	(1.0)	(0.5)	(0.4)	(0.1)	(0.0)
▪ 광역시 ⁴⁾	0.2	0.0	0.1	0.4	0.1	0.2	0.1	0.1
▪ 지방 ⁵⁾	0.1	-0.1	-0.1	0.0	0.0	0.0	-0.0	-0.1

주: 1) 모기지론 양도 포함
 2) 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국민은행 지수 기준(<>내는 한국감정원 지수 기준)
 3) 서울, 인천, 경기 4)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5)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여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